거리 파사드 프로젝트

173 거리 파사드 프로젝트 – 개요 및 설명

177 종합 공가 세트 이천동 고미술거리

178 물이 지나던 길 대명2동

179 넓은 덕을 잇는 광덕시장 1

180 넓은 덕을 잇는 광덕시장 2

p. 179

남구도시기억 도큐멘타

HOOLA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에서 파사드란 건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를 말한다. 때로 내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구성이 되기도 하며 장식적으로 다루어진다. 거리를 걷다 보면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로 인해 건물의 파사드만 보기 쉽다. 건물의 내부와 전체적인 구조는 문을 통해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나는 동네의 파사드적인 풍경을 그렸다. 문과 창문이 있는 건물의 정면부. 때로는 공가라는 글씨가 쓰여 있기도 하고 덩굴식물이 벽을 타고 자라기도 하는. 카메라와 대상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그려낼 수가 있는. 그것은 대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도 닮아 있었다. 나는 처음 가본 동네에서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의 겉모습을 그려냈다. 꼭 껍데기 같아 보이기도 했다. 껍데기라 하면 속이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나의 작업이 그랬다.

이번 남구 기억 아카이브 작업에서 파사드 작업을 제안받고는 짧은 시간에 답사하며 어떤 풍경을 그려낼지 고민했다. 내가 껍데기를 그리면 텅 빈 내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기억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많은 건물들이 가림막으로 가려진 이천동은 도롯가에 고미술 거리의 일부가 남아있었고(사진을 다시 찍기 위해 갔을 땐 이마저도 가려져 한 장의 사진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집과 오래된 가게가 남아 있는 대명2동은 옛 물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풍경을 선택하였다. 재개발 계획은 없지만 많은 상인이 떠나고 사람의 발길도 끊어진 광덕시장은 양 측면부 파사드를 그림으로 기록해보았다. 당장 사라져버릴 풍경은 아니지만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 없는 낡은 시장이기에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파사드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내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내 작업에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파사드의 내부와 풍경들은 남구 기억 아카이브의 다른 모든 작업을 읽다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을까.

종합 공가 세트_이천동 고미술거리 22cm×73cm 종이에 수채 2020

재개발 지역 담벼락에 빨갛고 파란 스프레이로 써진 '공가'라는 글자를 볼 때면 어떤 폭력성과 무자비함이 느껴진다. 글씨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도 뒷골목의 깡패가 눈 앞에 그려졌다. 한 번은 '공가'나 '철거' 대신 '안녕'이나 '잘 가'라는 문구를 쓰면 어떨까, 감상적인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다. 이천동 재개발 지역을 처음 찾았을 때도 스프레이로 새겨진 '공가'라는 글자에 먼저 눈이 갔다. 여느 동네와 다름없이 철거, X로 반복되는 표시들 속에 긴 물결선이 눈에 띄었다. 파도처럼 길게 이어진 빨간 선. 고미술 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은 긴 선으로 한데 묶여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물이 지나던 길_대명2동 22cm×73cm 종이에 수채 2020

'옛날에는 이쪽으로 물이 흘렀어.'

'저쪽에 다리가 있었지.'

이 동네를 걷다 보니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예전에 큰 못이 있던 자리고 하천도 흘렀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자세히 보니 물이 흘러간 흔적이 조금씩 눈에 보였다. 그 흔적은 건들바위서부터 좁은 골목의 축대, 얼핏 보면 그냥 산인데 절벽에 침식된 흔적이 있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평범해 보이는 동네에서 처음 낯선 느낌을 받은 이곳 역시 돌로 만들어진 축대 위에 집들이 늘어서 있다. 네모난 모양에 동그라미가 새겨진 돌들이 쌓여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 도로와 같은 높이가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풍경은 계속 변화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나는 자연스레 옛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이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옛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켜켜이 쌓인 시간들은 흔적도 없이 모조리 사라져버리겠지. 늘 그랬듯...

넓은 덕을 잇는_광덕시장 22cm×73cm 종이에 수채 2020

눈으로 지도 어플을 열심히 훑으면서 머리로는 수많은 노점이 늘어선 시장을 그렸다. 지도에 표시된 곳 근처까지 왔는데 도무지 시장 같은 풍경이 눈에 띄지 않는다. 길가에 있는 상가들 사이사이로 좁은 골목이 보였다. '주거지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모퉁이를 돌아 조금 더 걸어가 보았다. 어둠 사이로 조그만 불빛이 반짝였다.

골목이나 집 같은 사적 공간과 식자재나 물건, 음식 같은 것을 사고파는 공적 공간이 혼재된 곳이었다. 옛날식 주상복합인데 1층은 상가, (2층이라 하기엔 낮은) 1.5층은 주거공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면 정글처럼 우거진 텃밭이 펼쳐진다. 텃밭도 상가와 동일하게 구획을 나누어 다양한 작물을 가꾼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재래시장 중엔 주거지와 상가가 결합한 형태가 많았던 것 같다. 단지 길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의 복잡한 풍경에 시선을 뺏겨 주거공간을 잘 보지 못했을 뿐. 반면 광덕시장은 상가들이 얼마 남지 않아 상가보다는 골목과 집이 더 드러나 있어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간, 우중충한 날씨에 어둑어둑한 시장 구석에서 어르신들의 옛날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기보단 그냥 옆에 앉아 내 할 일을 했던지라, 기억은 별로 없지만 광덕시장이 한때 성업했던 곳이었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상인들도 많이 떠났다고 하셨다.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섞인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되긴 힘들 거라는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긴긴 터널 같은 말을 지나 시장 밖으로 나오는데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다. 당연히 비가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놀라운 건 시장 내부가 어둑한 탓에 날이 갠 것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나는 찍었던 사진을 뒤로하고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Q. (나에게) 광덕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A. 없는 게 많은 곳. 평범하고 오래된 시장. 큰 마트 들어서기 전에는 장사가 잘 됐던 곳. 3남매 키우고 결혼 시키고 생명의 은인 같은 곳. 살던 동네. 좋은 곳.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재밌고 즐거운 곳. 놀이터. 생활의 터전. 친구들 오가며 만나는 곳.

Q. 앞으로의 광덕시장은 어땠으면 하나요?

A.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 됐으면. 좋아지면 좋겠은데 좋아질 리가 없다. 오래돼서 비도 새고 재개발 됐으면.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재정비됐으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듯. 그냥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유지되었으면. 발전되었으면. 사람들이 북적였으면. 빈 점포에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 상권이 형성되었으면.

참여가게: 대명철물, Mellow moment, 울진김치, 미진참기름, 오복상회, 실비식당, 해왕성

거리 파사드 프로젝트

발행 대구광역시 남구
발행일 2020. 11.
주관 훌라 HOOLA

집필 및 그림 김민정
디자인 구민호

문의 훌라 HOOLA
전화 053 710 0427
이메일 hoola2016@naver.com
인스타그램 wwwhoola

※ 이 책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사업(남구기억아카이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와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 공가 세트_이천동 그리슬거리

물이 지나던 길_대명2동

넓은 덕을 잇는_광덕시장_2